

더 꼬인 무안공항 재개항...정부, 참사 책임 인정 절실

李대통령 “신속 재개항” 지시 불구
유해 발견·행정 부실 감사 적발에
국토부, 유가족 협의·로드맵 ‘제동’
7월 개항 난망...폐쇄 장기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재개항 지시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희생자 유해가 추가 발굴되는 등 초기 수습 과정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계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책임이 드러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한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사

과가 무안공항 재개항의 선결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사 이후 1년 이상 장기 폐쇄된 무안공항과 관련, 유가족 협의를 비롯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직후 폐쇄됐다.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 철거·재설치에 대

해 유가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폐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날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무안공항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사고 현장 보존만 정확히 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면 (재)개항에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라. 무한대로 끌 수는 없지 않나. 협의를 잘 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은 유가족들도 간절히 원하는 바”라면서도 재개항의 전제가 ‘완전한 안전’임을 강조했다. 선형 조건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 보장,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 등을 촉구했다.

국토부 또한 대통령 지시 이후 즉시 유가족 협의를 비롯한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2면에 계속 /양시원 기자

이개호, 민주당 경선 불참 선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7파전’

6·3 지방선거 D-83

“통합특별시 성공 위해 묵묵히 헌신”
19·20일 당원 100%예비경선 5명 압축

이개호 국회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호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며 씁 없이 달려왔으나 저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다.

그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핵심적인 사유는 당이 확장한 경선 방식이다.

이 의원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건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계속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경선 방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돼 원칙을 준수해 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록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로서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호남의 대전환과 지역 발전을 향한 저의 총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예비후보 (전남지사 직무정지)·민형배 국회의원·신정훈 국회의원·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정준호 국회의원·주철현 국회의원 (가나다 순) 등 7명을 대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를 5명으로 압축한 뒤, 4월3-5일 본경선 (권리당원 50%·일반시민 50%)을 치를 예정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4월12-14일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김진수 기자



주유소 정량·품질 검사 이란 전쟁 여파로 주유소 석유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11일 광주 북구의 한 주유소에서 북구정 민생경제과 에너지정책팀 직원과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정량·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조영권 기자

돌아온 ‘야구의 계절’...오늘부터 시범경기



2026년 ‘V13’을 향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첫 실전 무대가 광주에서 시작된다. KIA는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13일까지 SSG와 홈 2연전을 가진 뒤 14-15일에는 KT를 상대로 다시 홈 경기를 이어간다. ▶관련기사 16면

KIA, SSG·KT 홈 4연전...‘V13’ 담금질

이후 원정길에 올라 16-17일 NC(창원)를 시작으로 19-20일 한화(대전), 21-22일 두산(잠실), 23-24일 삼성(대구)까지 시범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개막 초반 광주에서 열리는 SSG·KT전은 팬들이 가장 먼저 KIA의 새 시즌 전력을 확

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WBC에서 맹활약 중인 김도영의 합류 시점과 새 외국인 선수 카스트로·데일의 활약 여부에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광주에서 열리는 시범경기 예매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장 방식은 경기마다 다르다. 12-13일 SSG전은 무료 입장이며 예매 수수료 1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14-15일 KT전은 유료로 운영된다. 특별석은 1만원, 일반석은 성인 5천원·청소년 3천원이며 어린이는 무료다. /주홍철 기자

Today	
집합 건물 ‘유령 증축’ ‘재산권 피해’ 분통	6면
남도인물열전-임란최초의병장 ‘유팽로’	14면
KIA 시범경기 관전포인트 5가지?	16면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